

2015. 06

충청남도의회소식 제67호

제278회 임시회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
의회소식**



부여 백제문화단지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너희가 아느냐

시 / 김 은 재

꽃향기 황홀이 피어오르는
사랑과 미의 달 인가하면
원한의 마수가
이 강산을 핏빛으로 물들인
울분에 달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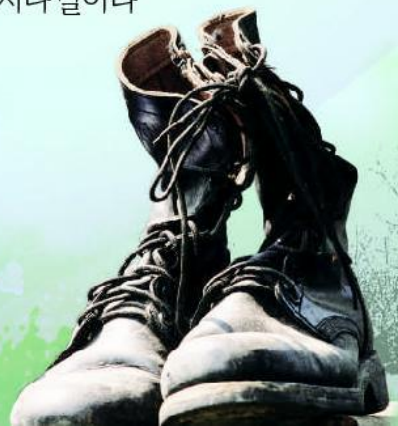
세대가 변하고 남북이 손을 잡아도
아~ 어찌 잊으리 그 날을
지금도 차디찬 돌비석 꿰어 안고 울부짖는데

너희가 아느냐
조국을 위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젊음을 불사른 선열들의 거룩함을

너희가 아느냐
만리타국 월남 전선에서
어머니 어머니 외치면서 죽어간 용사들을

너희가 아느냐
자식만큼은 훌륭히 키우겠다고
힘들여 키운 자식
바다에 묻어둔 어미에 마음을

모르면 나서지나 말아라





부여 백제문화단지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소식

CONTENTS

- 02 개회사
- 03 본회의
- 04 핫이슈
- 07 의원논단
- 09 생생인터뷰
- 11 5분 발언
- 16 상임위원회
- 22 현장의정
- 24 의원주장
- 29 임시회주요안건 처리현황
- 32 연구·토론
- 38 포토의정
- 46 사무처 소식
- 50 느낌 충남
- 52 여름철 건강관리

충청남도의회소식지 제67호

- 발행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 편집 | 총무담당관 기획홍보팀
- 전화 | 041)635-5102
- 팩스 | 041)635-5009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도청대로 600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 디자인·제작 | 예지인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활기찬 봄에 제278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비회기 중에도 지역 곳곳의 민생현장을 살피며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난 13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하여 원칙과 기준 없는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 위원회의 편파적인 결정으로 정치권과 시민들이 연일 집회와 궐기대회,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어 21일 道 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히 규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충남인 모두가 도계 사수를 위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후속조치로 교육청내 실무추진 팀이 만들어져서 학부모설통화, 상향평준화 방안모색, 통학 편의를 위한 버스 노선 변경 등 제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학생·학부모·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 없이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호남고속철도 KTX 공주역 개통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연계한 새로운 부가가치산업 육성과 내포 신도시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하드웨어적 투자와 내포 정체성을 공유하는 소프트웨어적 접근도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도민의 복지향상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과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도정의 각 분야에서 도민을 위한 현안 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닌지 의원님들의 세심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4. 30.

충청남도의회위원장 김 기 영

제278회 임시회 30일부터 14일간 개최

- 추경 심의 통해 도 추경 7천869억여원 확정... 당초 제출안 보다 16억여원 삭감 -
-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조례 제·개정 및 5분 정책 발언, 현장 활동 활발 -



제278회 임시회가 4월 30일부터 14일간 개최됐다. 이번 회기는 도 본청과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조례안을 처리했다. 특히 5분 정책 발언, 현장 방문 등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초 도가 제출한 7천885억5천610만원보다 15억9천10만원 삭감된 7천869억6천600만원을 확정했다. 또,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소송을 위해 필요한 추경 예산 2억100만원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장기승 예결특위위원장은 “지방세 수입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 편성, 국고보조 변동에 따른 도비 부담액 등에 대해

집중 심사했다”며 “건전한 재정 확보를 위한 도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예결심사였다”고 평가했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도 대거 가결됐다.

구체적으로 ▲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 조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등이다.

김기영 의장은 “도민의 땀과 열정이 깃든 혈세를 절대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도의회가 앞장서겠다”며 “살기 좋은 충남, 삶의 질이 향상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01

hot issue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 가져

충남도의회는 6월 3일 의장실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충남 지역에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김기영 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 새누리과 새정치 대표 등은 충남도 및 도교육청 관계관을 불러 메르스 확산에 따른 예방 및 대책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영 의장은 메르스 질병의 확산이 매우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염려하며, 도의 예방대비체계를 현재의 23명으로는 부족하므로 확대 운영하여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익환 부의장은 중앙부처와 도의 유기적 협조 체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길행 운영위원장은 메르스 확산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도와 도교육청간 정보공유 및 공조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맹정호 의원은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격리치료를 위한 도내 의료시설 확보에 대해 묻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했다.



02

hot issue

일선 시·군의회와 지역 현안 힘 모아 해결키로

충남도의회와 일선 시·군의회가 지역 현안을 공동으로 협력·대응키로 중지를 모았다. 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장은 4월 2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도내 시·군 의회 의장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과 시·군의회 의장들은 향후 교류 확대를 통해 도·시군 의회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지역 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지원 키로 했다.



당진 김명선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지형도상 해상경계상 관할경계를 확정
 했음에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분쟁은 양 지역간 갈등 중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표 발의한 ‘당진·평택항 충남도계 사수를 위한 건의문’이 지난 3월 충남
 도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등에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이어 5월 4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도계 결정을 강력 비판하고 위험적이고
 비합리적인 도계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충남도의회에 도계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농협충남본부 조권형 본부장을 비롯한 RPC 운영협의회 임원 등은 5월 13일 충남
 도의회에 RPC 가공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위한 1만2천5백명의 입법청원
 서명서를 전달했다. 주요내용은 최근 쌀 가격 하락 등으로 미국종합처리장(RPC)
 가공시설의 경영악화로 산업용 전기를 농사용으로 전환해 경영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기영 의장을 비롯해 김문규·맹정호 양당 대표,
 김홍열 농업경제환경위원장, 김명선·강용일·김용필·전낙운 의원, 강문규 당진 우강
 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산업용 전기를 농사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향후 초당적으로 협력기로 했다.



03

hot issue

당진 김명선 의원,
 도계 분쟁 전략 마련 촉구

04

hot issue

미국종합처리장
 전기요금 농사용으로...
 법률 개정 공감

05

hot issue

2014회계연도 충남도·교육청 결산검사 돌입

충남도의회는 5. 14일부터 6. 2일까지 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김석곤(금산1), 유찬중(부여1), 김명선(당진2) 의원을 비롯해 회계·세무 전문가 등 9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계속비 및 명시·사고 이월비 결산 등에 대한 서류·현장을 검사했다. 또,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적법성, 사업집행의 적정성, 예산낭비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06

hot issue

도내 민간항공 유치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는 5월 18일 한서대 국제회의실에서 한화해권 경제 발전은 물론 도민 복리 증진을 앞당기기 위해 「서산비행장 민간항공 유치 추진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종화 건설해양소방위원장(홍성2)의 신청으로 열린 이번 의정토론회는 한경관 한서대 항공부총장이 좌장을, 이선하 공주대 교수가 주제를 발표했다. 또 이현우 도 건설교통국장, 김영제 서산시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원철 충남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도의회가 민간항공 유치에 발 벗고 나서 토론회를 연 이유는 도민들이 공항을 이용하기 위해 2~3시간 이상 국·철도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 경제, 사회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대중국 관광객 유치 등 민간항공 유치로 인한 경제적 유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의원논단



재난안전, 의식이 먼저다.

충남도의회 유익환 부의장

드넓은 백사장과 푸른 파도가 일렁이는 우리지역 곳곳의 태안 앞바다. 어린 시절부터 줄곧 목격해 왔지만 언제 어디서 누구의 실수로 떠밀려 왔는지 그 하얀 백사장 곳곳에 검은 기름덩어리가 엉겨져 있었다. 자연은 아무 말 없이 쓰다듬고 치유해 주곤 했다. 이는 서해바다를 이동하는 수천척의 선박들로부터 오랜 세월동안 크고 작은 사고에 의해 반복되는 기름유출로 몸살을 앓곤 했다.

세월호 사고 또한 침몰 전에 주변에서 크고 작은 우려와 함께 문제를 안고 있었음에도 '설마' 라는 관행으로 묵인되어 왔기에 고름이 결국 터져버렸다. 굳이 '하인리히 법칙'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항상 대형 사고는 사전 예고를 하는 데도 우리 인간은 사고 이후에서야 후회와 함께 지각하곤 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최고를 자랑한다는 미국 FEMA(연방비상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재대비 캠페인 사례를 들어 보자. ▲집의 층마다 취침 장소의 밖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점검하자. ▲아기에게 소방관으로부터 숨지 말라고 가르쳐라. ▲부엌, 침실, 지하실 등에서 불이 나서 퍼지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 까지 생각해 두어라. ▲화재대피 계획은 적어도 1년에 두 번은 정기적으로 연습하되 자주할수록 좋다. ▲연기흡입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코와 입을 막는지 자녀들에게 보여 줘라.

외형적으로 보면 위 내용 면면이 우리도 지극히 실행 가능하고 그다지 새롭지 않은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다.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도 이들과 상당부분 근접해 있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시행자 측에서는 어떠한 통제와 간섭도 무소불위로 집행하고,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불편과 시간도 감내하며 규정은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지키는 시민의식의 발로이다. 사고의 예방은 큰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지켜나가다 보면 차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주민과 공직자들이 진지하게 눈여겨 봐야할 대목으로 그 작은 것, 그리고 누적 반복되는 문제점들을 간과하지 않을 때 우리사회 각처에 무수히 도사리고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대처하는데 디딤돌이 될 것이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대부분이 시설의 결함보다는 안일과 방심, 조급에서 왔다. 여기에 안전 불감증이 더해졌다. 본격적인 행락철, 이제 목숨을 담보로 한 안전 교훈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기에 주민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키워 나가야 할 과제이다.

의원논단



더 좋은 민주주의가 갈등 해결의 답

충남도의회 행정호 의원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다. 솔직히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었다. 그리고 어느 때는 기쁨의 눈물이 흐를 때도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갈등의 현장에서 느끼는 감회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시대 정치의 과제는 뭐니 뭐니 해도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췄는지를 알 수 있는 것도 이 갈등을 대하는 자세와 능력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에도 갈등은 수없이 많다. 그 수많은 갈등의 현장에서 있는 한 사람으로 부족하고, 화나고, 희열을 느끼기도 한다. 갈등의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무게는 '자기편을 손들어 심판해 달라'고 할 때이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의 손을 들어 갈등을 중재할 수 없다. 힘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그 갈등의 근원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진심을 갖고 늘 함께해야 한다. 팔봉 소금공장이 문제가 되었을 때 많은 주민들은 행정기관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 냈다. 많이 비난받고 혼났지만 가서 만나고, 또 가서 만나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씩 얻을 수 있었다. 마을을 깨끗하게 지키고자 한 주민들이 물론 주인공이다.

▲역지사지가 갈등해소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대산 환경 협의회를 만드는 과정은 참으로 어려웠다. 공장과 가까운

마을과 조금은 떨어져 있는 마을 간에, 주민과 기업, 행정 기관과 주민, 기업과 행정기관 간의 불신과 반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역지사지의 미덕이었다. 조금씩 양보해 준 협의회 구성원들이 고마울 뿐이다.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발전소가 없는 서산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많은 송전탑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송전탑과 관련한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주민들보다 먼저 토론회를 조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송전탑을 지중화하지는 못했지만 주민들의 민원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이다.

▲문제의 지적도 합리적이어야 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에 대한 나의 소신은 분명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소신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가로림만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 가로림만의 생태와 역사, 주민들의 공동체 등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이를 통해 정부를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 물론 바다가 삶인 주민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렇듯 갈등해결의 가장 큰 핵심은 나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더 좋은 민주주의, 더 진전된 민주주의가 갈등해결의 답이다. 갈등을 피하지 않는 정치인을 다짐한다.

<도의회 상임위 순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 글 쓰는 순서

- ①의회운영위원회 ②행정자치위원회
- ③문화복지위원회 ④농업경제환경위원회
- ⑤건설해양소방위원회 ⑥교육위원회



김홍열 위원장



강용일 부위원장



김명선 의원



김문규 의원



김복만 의원



김용필 의원



전낙운 의원



홍재표 의원

'성장동력 창출' 과제...

농업 관련 정책·예산 확보 주력

충남도 경제통상실과 농정국, 농업기술원 등을 소관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홍열)는 도내 농어업은 물론 축산업과 임업, 경제 등을 총괄한다.

10대 농경환위는 9대 의회 상임위 주요 성과를 이어가는 동시에 참신하고 구체적인 농어업 정책을 주도적으로 개발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관련 예산 확보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농경환위의 최대 과제도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무산됨에 따라 개발을 필두로 한 경제 개혁에 밑그림을 집행부와 함께 그려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와 농업은 지방자치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만큼 충남 농어업이 경제와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열과 성을 쏟고 있다.

김홍열 위원장은 “일차 산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결합해 6차산업으로 고도화시키는 것이 미래 농수산업의 청사진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도내 농어민들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돕는데 의정력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용일 부위원장(부여2)은 “한·중 FTA 타결에 따른 가장 인근에 있는 충남에 직격탄이 예상되지만, 이를 극복해 오히려 농업 강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문규 위원(천안5)은 “국토의 중심인 충남이 대중국 진출을 꿈꾸고 있다”며 “경제와 농업의 진퇴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상임위가 뚝뚝 뭉쳐 충남 경제와 농업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용필 위원(예산1)은 “어족자원 고갈을 해결할 치어 방류 사업, 내수면 자원 육성, 산림자원 개발과 송전탑 설치를 비롯한 환경 민원 해결 등에도 부지런히 나서야 한다”며 “농축산어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그 날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명선 위원(당진2)은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지역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대안 마련 모색을 위해 집행부와 당진·아산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은 “FTA 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 차원의 대비책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낙운 위원(논산2)은 “3농혁신의 예산이 특정 지역에만 편중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라며 “민선 6기에는 균형과 조화를 맞춘 3농혁신이 되도록 감시·견제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재표 위원(비례)은 “우리 농촌은 65세 이상 농업인이 55%에 이른다”며 “실질적으로 어떠한 지원과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도민의 삶의 질이 결정될 것이다. 현명한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피력했다.



김홍열 위원장(청양) 인터뷰

“FTA 충남 농업에 직격탄...
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터”
집행부 소통 통한 깊게 내재한 현안 맥 짚기도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210만 도민의 먹거리(농업)와 주머니(경제)를 담당하는 위원회다.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우리 농산물 붕괴도 또 다른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산적한 과제를 앞에 둔 김홍열 위원장은 “우리 충남도에 FTA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갈림길에 섰다”며 “대중국을 겨냥한 다양한 농업과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농업 어떻게 보나.

“농업이 천하의 근본이라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도에서는 농업이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 첫걸음은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낮춰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판로를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시급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게 급선무이다.”

●FTA, 쌀 개방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데.

“농업인들이 고령화돼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다, 기계로 농사를 짓는 시대다 보니 돈이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용자를 받기엔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 쌀 시장 개방 문제 역시 도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도의회가 앞장서 대책을 모색하도록 유도하겠다.”

●제10대 의회부터 환경 소관 부서도 담당하게 됐는데.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상임위 역할이 막중하다. 도의

가장 핵심인 농업과 경제 그리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환경분야다. 그래서 발로 뛰는 상임위라는 말을 듣는다. 우리나라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관심을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하면 경제와 환경이 무너지기 마련이다.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을 믿는다. 항상 현장에서 농민과 경제인, 환경 문제를 살피겠다.”

●집행부와 소통이 눈길을 끄는데.

“민주주의의 핵심인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아무리 견제와 감시를 담당하는 의회라 할 지라도 도정 속에 내재된 현안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맥을 짚기 어렵다. 그러기 위해 최근 실국장과의 만남에 이어 팀장 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갔다. 그동안 도청 공직자들의 어려움을 다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댈 기회가 됐다. 앞으로 이런 대화의 길을 더욱 넓힐 계획이다.”

●끝으로 지역민에게 한 마디.

“3만3천명의 소규모 도시 청양군이 대도시 못지않게 자랑스럽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덕분이다. 청양군은 충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칠갑산을 중심으로 맑고 깨끗한 자연적인 아름다운 관광 명소가 있다. 이런 자연적인 관광명소의 청정성을 유지 보존하는 동시에 친환경적인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칠갑산을 중심으로 한 맑고 깨끗한 청정 지역, 구기자, 청양고추 등 관광과 상품을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5분발언

본회의-1차 2015. 4. 30



김원태 의원

계룡교육지원청 분리·설립 촉구

- 충남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교육지원청 없어… 양질의 교육 등 박탈
- 모든 조건 충족하는 데다, 학생 수도 7천명 넘어… 해당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논산시에 통합 운영 중인 논산·계룡 교육지원청을 분리, 계룡교육지원청을 신설해야 한다. 계룡시 인구는 4만306명(2월 기준)으로, 유·초·중·고교 학생 수만 하더라도 7천281명 등이다. 그럼에도 유일하게 계룡시에만 교육지원청이 없다.

이처럼 학생 수가 많음에도 교육지원청이 설치되지 않는 이유는 해당 법률(제34조)과 시행령(제5조)에 논산시와 묶여 운영토록 명시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실과 동떨어져 시행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을 도 교육청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정치권 협의를 거쳐 개정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한다.



정정희 의원

도민 참여 어려운 행사에 수천만원 혈세 낭비 지적

- 충남도 매년 유관순 시상식 행사에 8천만원 지원…
행사는 서울에서 열려 비난 고조

충남도가 서울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는 ‘유관순상 시상식’ 행사에 행사비 전액지원으로 매년 수천만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도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2000년부터 올해까지 14회에 걸쳐 매년 8천만원씩 11억2천만원을 투입했지만 도의 역할과 도민의 존재는 사실상 단절됐다. 이유는 천안의 유관순이 아닌 대한민국의 유관순이며, 서울에서 하는 유일한 유관순 관련 행사이고 학생과 합창단을 쉽게 동원할 수 있어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유관순 열사라는 이유로 서울에서 개최하는 논리는 도민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하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행사라 할지라도 도민 공감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참된 지방자치의 모습을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한다.

5분발언

본회의-1차 2015. 4. 30



홍성현 의원

청소년 대상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 선행 촉구

- 빈곤 정신건강 악화 등으로 자살로 내몰려...
최근 3년간 청소년 23명 목숨 내던져

충남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한국 청소년들이 하루 1명꼴로 자살을 시도, 연간 12학급 규모의 학생이 목숨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 빈곤·정신건강 악화로 자살로 내몰리는 청소년이 매년 지속해서 늘고 있어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2년째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증가율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인간 생명존엄이란 침해할 수도 없고, 침해당해서도 안 되는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회복해야 할 고유한 권리며 청소년들의 발달 과정이 조속해지고 있어 초등학교부터 생명존엄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개설돼야 한다.



김동욱 의원

도내 장애인 체계적인 보조기구 서비스 소외

- 장애인 삶의 날개라고 불리는 광역보조기구 센터와 관련 조례 전무...
13만 장애인 허탈
- 17개 광역시도 중 11개 이미 설치... 충남도 3년째 고배 마련 촉구

장애인 삶의 '날개'라고 불리는 광역보조기구센터가 도내 설치되지 않아 충남지역 장애인 등이 체계적인 보조기구 서비스 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다.

충남 인구의 6% 이상 차지하는 13만명 장애인들은 보조기구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 휠체어 및 보조기구 수리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단 한 곳도 없다. 충남은 지난해 광역보조기구센터 설치를 위해 3번 도전했으나, 경남, 인천에 밀려 무산됐다.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 등 11개 광역 시·도에 보조기구센터가 설립됐다. 충남도 역시 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과 사회생활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휠체어와 같은 장비를 비롯해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보조기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와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본회의-1차 2015. 4. 30



이용호 의원

당진·평택항 도계 분쟁 관련, 도민 결집 호소

- 충남 땅, 빼앗긴 당진항 기필코 되찾아야... 모든 역량 결집할 때
- 새로운 대응논리와 법적 대응 등 2라운드 전략마련 촉구

당진·평택항 도계분쟁과 관련하여 충남도민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결집해야 한다. 지난 4월 13일 충남의 노른자 땅 당진항 매립지를 경기도 평택시에 빼앗긴 것은 당진시만의 문제가 아닌 충남 전체의 문제로 충남 땅, 빼앗긴 당진항 매립지를 기필코 되찾아야 한다. 그동안 충남도는 단순히 TF팀 가동에 의한 대법원 소송 등 형식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강한 의지를 품고 적극적으로 제2라운드 전략 마련을 촉구한다. 당진·평택항 매립지(서부두)와 당진을 잇는 연륙교 건설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당진·평택항에서 당진으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다. 새로운 대응논리와 처분취소 청구, 권한쟁의 심판을 비롯한 더 조직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김석곤 의원

CCTV 관제센터 지자체, 교육청 입장차이로 지지부진

- 초등학교 CCTV 통합 운영 인건비 문제 놓고 줄다리기...
교육청 연간 68억원 부담 휘청
- 천안·아산(통합) 등 5곳 완료, 2곳 구축 7곳 센터 설치 지연 등 도민 안전 위해 서둘러야

충남 일선 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가 지자체와 교육청 간 입장차이로 지지부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CCTV가 설치된 지자체는 천안·아산(통합), 당진, 홍성, 태안, 청양 등 5곳이다. 공주와 보령은 올해 구축 중이지만, 나머지 7개 지자체는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센터 설치가 늦춰지고 있다.

1개 관제 센터에 연결된 CCTV는 약 450대(천안 제외)로 관제센터에 최소 15~25명이 상주하면서 연간 5억~9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된다. 문제는 행자부와 교육부가 초교 내 방범시스템 통합 사업을 추진하며 초교에 연결된 비중은 교육청이 인건비를 지원토록 했지만 교육청이 관제센터 인건비 부담을 꺼리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을 보호하는 것보다 야간에 지역민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관제 센터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지역민을 위한 시설인 만큼 이견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5분발언

본회의-2차 2015. 5. 13



이공휘 의원

이공휘 의원, 충남도 R&D 사업 예산 확보 미온적

- 17개 시·도 중 13위 하위권... 지역예산대비 R&D 자체투자예산 비율 1%(14위)
- 2010·2011년 R&D 사업 역시 16개 시·도 중 각각 14위...
충남경제비전위 구성 재검토를 촉구

충남도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R&D(연구개발) 사업예산이 17개 시·도 가운데 하위권으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3년 충남도 예산은 17개 시·도 중 10위인 4조3천억원으로 이중 R&D 예산 현황은 13위로, 436억원에 불과하고 지역예산대비 R&D 자체투자예산 비율 역시 1%로 14위에 머물렀다.

도가 올해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사업에 2324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지만 우리나라 R&D 사업 예산이 18조인 점을 고려할 때 이는 1.3%에 불과하다. 향후 또 다른 R&D 사업 확보를 대비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과 1%에 불과한 지역예산대비 R&D관련 자체투자예산 비율을 5%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기철 의원

지역 인재 육성 위한 다각적 제언 쏟아내 눈길

- 서울소재 충남학사 건립, 장학금 지급 기준 개선 등 맞춤형 인재육성 방향 제시
- 지역대학생 채용 기업에 도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 촉구 등
상생 기대

충남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서울소재 '수도권 충남학사 건립'과 '장학금 지급 기준 개선' 등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그램 구축을 촉구한다.

현재 충남지역에서는 매년 2천700명에서 3천명 가량의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지만 서울에 학사가 없다 보니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학업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장학금 지급 기준 방향도 개선돼야 한다. 충남인재육성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총 87개 대학 350명에게 6억726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지만 도내 205명, 관외 145명으로 수도권 명문대생의 수혜자가 적다. 도내·명문 대학 재학생을 우선으로 한 장학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



김 연 의원

도립장애인복지관 역할과 기능 재정립 촉구

- 자활과 복지 초점 맞춘 광역복지서비스 등 포괄적 허브기능 역할수행 필요
- 시군복지관 수준의 도립장애인복지관… 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 제언

도내 12만 4천여명에 달하는 장애인 복지의 구심점인 충남도립장애인복지관이 15개 시·군 장애인복지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최근 장애인들이 각종 상담, 심리치료, 교육 의료 재활 등 자립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강한 욕구로 자활에 대한 기능이 열악한 시군 복지관 이용률은 급감하고 있다. 장애인 90% 이상이 중도장애임을 고려할 때 자활에 대한 역할과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도립장애인복지관이 자립생활센터와 시군 복지관의 허브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현재 위탁 운영 체계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검토를 촉구한다.



김용필 의원

내포신도시 홍성·예산 공동화 현상 부추겨

- 지난 2년 4개월 사이 예산군 인구 3천여명 감소… 비효율적 개발 탓
- 예산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정주여건 시설 확충 필요성 제기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홍성·예산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 주변 지역을 고려한 기업유치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내포신도시가 남악신도시(전남도청 소재지)의 절차를 밟고 있지 않는지 우려스럽다. 남악신도시 2005년 인구 3만명으로 출범, 10여년간 인구 2만명이 느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주변지역인 목포와 무안군 등에서 유입됐다. 현재 예산군과 홍성군의 인구가 내포신도시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2년 4개월간 예산군 인구는 3천131명이 줄었다. 충남도는 예산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구 충남방직 공장 활용대책, 예산전통시장 활성화 등 대책수립과 함께 소방행정타운의 예산군 유치를 촉구한다.



의회운영위원회 2015. 4. 30



조길행
위원장

김중필
부위원장

강용일
의원

김동욱
의원

김응규
의원

맹정호
의원

유병국
의원

유찬중
의원

정정희
의원



의원 신분증 ‘議’에서 ‘의회’로 변경

•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해야

운영위는 4월 30일 의회사무처소관 추경심사 및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견, 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개정의견 등을 처리했다. 사무처소관 추경예산심의는 의무적 예산절감 10%와 의정활동 강화사업 부족분 편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원안 가결했다. 또한 도립공원의 지속성과 건강성 확보를 위해 현명한 이용전략 모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모임 등록건도 가결했다. 의원신분증규칙은 ‘議’를 한글표기인 ‘의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가결했다.



2015. 5. 1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

김석곤
의원

김종문
의원

서형달
의원

송덕빈
의원

유익환
의원

장기승
의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례안 등 6건 심의

• Wee프로젝트 사업만으로 자살 예방 한계 드러내...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 강화 기대

교육위원회는 5월 1일 충남교육청 청소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5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했다.

김석곤 의원(금산1)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자살예방 관련 조례안은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행정·재정 뒷받침으로 청소년 자살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또, 충남과학교육원 아산시 이전 및 천안 불무중·고교 신설, 충남학생안전체험관(가칭) 증축을 주요내용으로 한 중부안전체험관과 중복투자의 우려로 충남 학생안전체험관 건립을 제외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2015. 5. 6



백낙구
위원장



김동욱
부위원장



유병국
의원



윤지상
의원



이기철
의원



이용호
의원



조길행
의원



조치연
의원



불요불급한 추가경정예산 운영 경종 울려

•향후 현미경 추경 심의 예고… 불요불급한 예산 과감히 삭감

행자위는 5월 6일 안전자치행정국을 비롯한 도립대, 공무원 교육원 추경심사에서 성격에 맞지 않는 예산을 조목조목 골라냈다.

이용호 위원(당진1)은 예상할 수 있던 예산의 추경편성을 질타하고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 부득이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추경 예산에 올려달라고 당부했다.

백낙구 위원장(보령2)은 당진·평택항 도계분쟁과 관련하여 안일하게 대처한 집행부의 행태에 유감을 표시했다. 뒤늦게 도계분쟁 관련 소송비용을 추경에 올린 것은 뒷북치기와 같다고 질타했다.

조치연 위원(계룡)은 대전 선화동에 적십자 희망봉사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당초 약속과 다른 것으로 도민 혈세로 지원되는 예산인 만큼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철 위원(아산1)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붕괴하는 농어촌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무선 방송 설치사업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길행 위원(공주2)은 예산서에 예산 증감 외 사전 공지 없이 조직개편 자료를 제출한 것은 집행 부의 안일함과 도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2015. 5. 6 문화복지위원회



오배근
위원장

유찬중
부위원장

김연
의원

김원태
의원

김종필
의원

윤석우
의원

이공휘
의원

정정희
의원



집행부 예산 절감 형식에 그쳐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를 일률적 삭감 우려

문화복지위원회는 5월 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예산 절감을 위한 삭감의 형식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오배근 위원장(홍성1)은 체육꿈나무 선수육성 예산을 세부적 산출 없이 학교마다 일괄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동아리 재능기부는 모든 시·군을 매칭 한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찬중 위원(부여1)은 국비예산의 사업 전반에 대한 의회 사전보고 후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종필 위원(서산2)은 출연기관 예산편성시 잉여금 기준이 없어 방만한 운영이 예상되므로 관계부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공휘 위원(천안8)은 책을 읽는 인구와 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에도 일률적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은 도서관 예산이 삭감된 것은 유감으로 대처방안이 요구된다고 질타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5. 5. 6



김홍열
위원장



강용일
부위원장



김명선
의원



김문규
의원



김복만
의원



김용필
의원



전낙운
의원



홍재표
의원



홍재표 의원, 추경 예산 심의 날카로운 면모 과시

- 송곳 질문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등 꼬집어내...
태안 삼성초 다목적교실 사업비 확보 일등공신 등

홍재표 의원은 5월 11일~12일 양일간 열린 충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한 예산에 대해 송곳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환경녹지국과 농정국 소관 심의에서 강정리 석면 피해와 관련, 특위가 가동 중인 만큼 하루빨리 갈등을 봉합해 달라고 촉구했다.

도내 226개 희망마을에 1천268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산업실과 농업기술원 등 예산심의에서 방만한 예산 운용을 줄여 달라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투명하고 도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심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도의원의 임무라고 말했다.



2015. 5. 6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추경심의서 소방장비 확충 주문

• 낡은 통신 시설 예산 늘려야 하지만, 돌연 예산 감액 의문

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5월 6일 열린 소방본부 추가경정예산심의에서 소방장비 확충을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장(홍성2)은 예산절감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 시설을 후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신재원 위원(보령1)은 소방은 도민의 생명임에도 청양소방서 신축 예산 삭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진환 의원(천안7)은 아산소방서 신축부지 교환금과 소방체험관 관리운영비, 특수장비 보관함 등 예산 효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사업 추진에 철저한 노력을 당부했다.

정광섭 의원(태안2)은 국비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1억원에 가까운 119광역기동단 보조금 반환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오인철 의원(천안6)은 행정운영경비는 늘어난 반면 현장 활동 예산은 줄었다고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해제된 황해경제자유구역 찾아 사후관리 방안 모색

- 6~7일 양일간 현장 방문...송악지역민 만나 속사정 엿들어
- 실패 원인에 대한 정확한 맥 짚고, 향후 발전 가능성 타진

“해제된 황해경제자유구역,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5월 7일과 8일 양일간 투자자를 찾지 못해 침몰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를 찾아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명선 위원(당진2)은 실패한 과거에 집착하기 보다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대안을 마련하고 더욱 발전할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열 위원장(청양)은 환황해권 개발의 첫 단추인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해제는 도의 적극성 부족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용일 위원(부여2)은 지역 숙원 해결로 지역민 심방감이 크지 않도록 지역 발전에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홍재표 위원(비례)은 지구 지역민은 재산 행사 제한 등 지난 6~8년간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원인과 이유를 떠나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2015. 5. 7

현장의정



학생 중심 현장 의정활동 강화

- 6일과 7일 이틀간 사무실 대신 교육현장으로 발걸음...교육현장 실태 파악.
- 대학진학에 몰두한 교육보다 인성과 자긍심, 나눔 필요한 시대 강조.

교육위원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5월 6일과 7일 교육연구정보원과 남부평생학습관, 삼성고, 충무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등 현장으로 발길을 돌려 교육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학생 중심 교육을 당부했다. **김종문 위원**(천안4)은 아산지역 학교 학생의 행복지수가 51%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대학 진학에 목표를 두지 말고 나눔과 배려,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 일원을 육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익환 위원(태안1)은 남부평생학습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논산을 비롯한 6개 시·군의 거점지역의 공모사업을 골고루 배분해 타 지역이 평생학습에 소외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기승 위원**(아산3)은 과학교육원의 성공적인 이전(대전→아산)을 위해 지역민들의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성현 위원장**(천안1)은 이번 현장방문으로 관내 직속기관 운영 현황을 파악했으며 특색 있는 정책 개발, 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발굴, 방향 제시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익환 의원

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외면 심각

- 매년 20%를 웃도는 등 이로 인한 재정손실 60~70억원에 달해
- 100%완납하는 사립 재단 매년 10곳 미만..교육당국 강 건너 불구경

충남지역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이 매년 20%를 웃도는 등 정당한 납부를 외면하고 있다. 사학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사립학교가 내야 할 돈을 교육 재정에서 메꿔주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사학의 자율성을 내세워 교육청 감독은 백안시하면서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외면하는 처사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교육청은 사립학교들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하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맹정호 의원

안전체험관, 충남도 따로 교육청 따로

•맹정호 도의원 “공모사업 핑계로 145억원 중복투자 예산낭비”

충남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학생안전체험관 건립계획은 준공을 앞둔 충남도의 중부권안전체험관과 성격이 유사해 중복투자 우려가 높다. 충남교육청은 교육부 공모사업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3,895㎡에 145억원의 예산을 들여 재난안전, 교통안전, 생활안전, 응급처치 체험관과 영상관 등을 지을 계획이다. 충남도도 천안시와 함께 220억원(국비110, 도비55, 시비55)을 투자해 현재 연면적 5,795㎡에 지하철사고, 화재사고, 비상상황 체험관과 영상관 등을 갖춘 중부권안전체험관을 신축 중으로 금년 9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도청과 교육청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 없이 대동소이한 사업을 각각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도 떨어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교육청이 추진 중인 안전체험관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김중문 의원

저소득층 PC 및 인터넷 지원 관리체계 개선

•저소득층자녀 PC 유해사이트 차단 대책 마련 촉구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저소득층자녀 PC 및 인터넷 지원 사업 유해차단서비스 테스트 결과 보고서가 인위적으로 특정 방식에 유리한 평가항목을 구성하고 필수 테스트 항목이 누락되었으며 일부 데이터에 대한 조작이 의심되는 등 망 차단과 S/W결합 방식을 채택한 보고서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 컴퓨터가 없어 정보화에서 소외되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해 충남교육청이 무상지원 하고 있는 유해 차단서비스가 관리 소홀로 인해 청소년들이 사이버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PC와 인터넷의 지원 후 교육청에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돌봄이 부족한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을 관리해 줘야 한다.

학습준비물 쿠폰제 충남전역 확대 촉구

•학생들 경제 관념 습득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상생 물꼬 기대

•현재 5개 초교 시범운영... 10% 목적사업비 예산 비중 30%로 확대해야

충남도교육청이 학교 앞 문방구를 살리기 위해 '학습 준비물 쿠폰제' 가 충남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목적 사업비로 전환된 만큼 이를 확대해 학생들의 경제관념 습득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상생 물꼬를 터야한다. 학습준비물 쿠폰제는 학교 목적사업비 총예산의 10%를 소량 및 수시구입 대상 소매점 문구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성, 쿠폰을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제도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하후상박 방식 개선 촉구



김 연 의원

- 도내 종사자 3년 미만 27%에 불과... 박봉으로 인한 이직 현상 두드러져
- 현재 9~10만원 받는 처우개선비, 15~18만원으로 개선해야...도 용단 필요

충남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결혼 적령기를 앞둔 3년 미만 사회복지사들이 박봉으로 인한 이직·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도내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연수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4488명 중 3년 미만은 27.4%에 불과하며, 3~5년 미만은 14.4%, 5년 이상은 58.2%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는 처우개선비는 3년 미만 9~10만원, 3~5년 미만 12~15만원, 5년 이상 15~18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처우개선비를 '하후상박' 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단순히 예산만 편성하는 것은 급한 불을 끄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경력이 짧은 종사자들이 이직한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복지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제278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총 13건:

- 조례안 9, 예산안 1, 규칙안 1, 동의안 2
- 원안가결 10, 수정가결 3



조례안

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 대표발의 **김문규 의원**(김홍열, 장기승, 강용일, 김용필, 김명선, 김복만, 전낙운, 홍재표 의원)

처리결과 / 원안가결

주요내용 /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도록 하기 위함.

조례안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 의 자 / 도지사

처리결과 / 수정가결

주요내용 /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2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것을 4회로 분할하여 선택할 수 있게 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 의 자 / 도지사

처리결과 / 원안가결

주요내용 /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 약칭 변경, 위원회 명칭 변경, 관련 조례명칭 변경과 건축사업 분양수익(안제19조)과 재생사업에 따른 녹지비율 및 도로율(안제20조)을 신설함

조례안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 도지사

처리결과 / 원안가결

주요내용 /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하고 제명을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로 변경, 주택중개 보수표 중 매매·교환(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임대차(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함

조례안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 교육감

처리결과 / 원안가결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근거 인용조항 변경하고 대부료 등에 관한 조정사항 반영과 교육청 본청 및 교육지원청 부서 등 변경내용을 반영

조례안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 교육감

처리결과 / 원안가결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 내용 중 “경리관(분임경리관)”을 “재무관(분임재무관)”으로 변경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 교육감

처리결과 / 원안가결

주요내용 / 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의 비정규직 총칭인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하여 자긍심 고취 및 시대적 변화 반영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 대표발의 **송덕빈 의원**(김원태, 전낙운, 홍성현, 맹정호, 김석곤, 유익환, 김종문, 서형달, 장기승 의원)

처리결과 / 원안가결

주요내용 / 스승의 날 발원지인 논산계룡지역의 스승 존경 정신계승과 교육의 자긍심과 사명감 고취를 위한 기념행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교육감 책무, 개최시기, 행사내용, 행사의 위임 위탁 및 행사비 지원, 관계기관 협조 등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발 의 자 / 대표발의 **김석곤 의원**(홍성현, 맹정호, 송덕빈, 유익환, 김종문, 서형달, 장기승 의원)

처리결과 / 원안가결

주요내용 /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자살예방 종합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학생의 건전한 성장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감의 책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정보관리, 담당교사 교육, 예산지원 등을 규정함

예산안

2015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발의자 / 도지사

처리결과 / 수정가결

주요내용 / 추경예산안 규모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2,170에서 추경예산 46,643으로 4,473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540에서 추경예산 9,936으로 3,396증가하여 합계는 추경예산 56,579로 기정예산 48,710보다 7,869증감하였다.

규칙안

충청남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자 / 의회운영위원장

처리결과 / 원안가결

주요내용 / “충청남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을 “충청남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의회회장을 ‘議’에서 한글 ‘의회’로 개정함

동의안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발의자 / 교육감

처리결과 / 수정가결

주요내용 / 취득 (토지 9건 137,453m² 82,466백만원, 건물 11건 108,712m² 197,739백만원)
처분 (토지 2건 10,523m² 182백만원, 건물 8건 1,345,75m² 130백만원)

동의안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발의자 / 대표발의 김석곤 의원(홍성현, 맹정호, 송덕빈, 유익환, 김종문, 서형달, 장기승 의원)

처리결과 / 원안가결

주요내용 / 어업지도선 건조,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자본금 증자, 충남도립대학교 기숙사 증축 등 3건 340억원





•연구모임 본격적 활동 돌입

충남도의회가 학계, NGO 등 전문가와 함께 5개의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지혜와 슬기를 모아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비회기 동안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015년도 연구모임들의 활동의지를 들여다 본다.

연구모임 구성현황

명 칭	구성일시	인원	비고
계	5개	75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2015.3.18	10	
충남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모임	2015.3.18	13	
하천의 친수 공간 조성 및 활용방안 연구모임	2015.3.18	19	
학교 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2015.3.18	19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2015.5.1	14	

1.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첫발

- 지역갈등, 대화와 협력을 통한 바람직한 합의마련 기대



충남도의회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윤지상 대표의원(아산4)은 4월 30일 도의회에서 첫 모임을 열고 천안·아산 KTX역사를 둘러싼 갈등, 가로 림만 조력댐 건설, 청양군 석면 폐기물 등 총 10여건의 공공갈등으로 사회적, 시간적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 등 도내 산재한 공공 갈등 현황 분석 등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했다.



2. 충남 관광활성화 연구모임 본격적 활동 돌입

- 서해안과 내륙 등 관광문화역사 산업 맞춤형 개발 기대



충남도의회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모임’

유찬중 대표의원 (부여1)은 관광·문화·역사 산업육성, 서해안과 내륙권 등 권역별 맞춤형 관광 패키지 개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3. 하천친수공간 조성 및 활용방안 연구모임 창립총회 개최

- 하천과 사람이 함께 숨 쉬는 공간을 위해 ‘열공’ 모드



충남도의회

‘하천의 친수 공간 조성 및 활용방안 연구회’

김용규 대표의원(아산2)은 4월 28일 아산시청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충남지역 생태하천 복원을 통한 지역민 자연생태 체험장 및 체육 레저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



4. 학교교육의 정상화 연구모임 본격 활동

- 하천과 사람이 함께 숨 쉬는 공간을 위해 ‘열공’ 모드



충남도의회 '하천의 친수 공간 조성 및 활용방안 연구회'

김용규 대표의원(아산2)은 4월 28일 아산시청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학교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다차원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 1번지 충남'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5.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연구모임 닷 올렸다

- 대둔산, 칠갑산, 덕산 등 보전 동시에 지역경제 이바지할 대안마련 박차
- 케이블카, 자전거도로, 산상호텔 등 지역과 연계한 새로운 모델 제시할 터



충남도의회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전낙운 대표의원(논산2)은 5월 13일 대둔산, 칠갑산, 덕산 등 도내 도립공원을 보전하는 동시에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해 도립공원 민자 유치를 통해 케이블카 사업, 자전거도로, 산상호텔과 같은 대대적인 관광 개발 방안을 모색,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뭉쳤다.



• 토론회를 통한 참여의정 실현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과 함께 5회에 걸쳐 토론회를 실시했다. 토론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문제의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치를 재발견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충남 자유학기제 지원체계 구축방안, 서산비행장 민항유치 추진방안 모색, 수요자중심의 장애인보조기구 전달체계 방안모색 토론회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토론회 개최현황

주 제	신청의원	개최일시	비고
충남 자유학기제 지원체계 구축방안	홍성현	4. 22	
서산비행장 민항유치 추진방안 모색	이종화	5. 18	
수요자중심의 장애인보조기구 전달체계 방안모색	김 언	5. 21	

1. 충남 자유학기제¹⁾ 지원체계 구축방안 의정토론회 개최

- 대지역사회와 호흡하는 프로그램 개발 선행 시급
-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및 지역민 등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충남도의회는 5월 22일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2016년 전면 실시됨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모색하고 성공적 안착을 돕기 위해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1)**의 요청으로 천안교육지원청에서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대비를 위한 자유학기제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의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선 ▲지역사회가 함께 호흡하는 프로그램 개발 선행 ▲기초단체와 기업 등이 함께 나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토론회에서 학부모 등이 학습보다 체험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학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이며 기본 교과와 연계성 강화와 학생 스스로 꿈과 끼를 찾으며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¹⁾ 중간, 기말고사 등의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과 실습 등으로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위주로 진행되는 교육제도를 말한다. 자유학기제는 전국 70%, 충남은 지난해 42%, 올해는 78% 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2. 서산비행장 민간항공 유치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 환황해권 개발 등 경제적 부가가치 상승 기대
- 중국과 활발한 문화, 경제, 사회적 교류 위해 민항유치 해야

충남도의회는 5월 18일 한서대 국제회의실에서 충남도 최대 현안인 서산비행장 민간항공 유치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종화 건설해양소방위원장(홍성2)의 신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충남도만 민간항공이 없어 항공이용에 최소 2~3시간 소요, 대중국과의 활발한 문화·경제화·사회적 교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환황해권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민간항공 유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불편을 해결기 위해 지목한 곳이 서산시 해미면에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으로 2002년부터 거론됐던 이 문제를 이제 실마리를 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해안은 대규모 산업단지,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바이오 웰빙 특구, 석유화학단지 등 핵심지역으로 중국과의 지리적 이점이 뛰어나고 운영비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소개했다.



3.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보조기구 전달체계 방안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 장애인보조기구 원스톱 서비스 위해 충남도에 광역센터 설치운영 절실

충남도의회가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자립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13만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보조기구의 잘못된 지원구조와 모니터링 체계 부족으로 보급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참여나 요구가 소외된 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체계 개선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비례)의 신청으로 5월 21일 나사렛 대학교 보조공학센터에서 열린 의정토론회에서 중앙 광역 지역의 보조기구 서비스센터별 역할분담이 선행돼야 하며 전문가-담당자간 협업, 장애인보조기구 판매현황 실태조사 등 지역 연계서비스망 구축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장애인, 노인에게 모든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통합적 연계 서비스(One-Stop Service)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센터가 없는 충남의 조속한 설치와 함께 운영조례를 제정해 개인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보조기구 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약은 없는지, 합리적인 지원대상자 선정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등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01

4월 3일 _ 아산시 주민일행은 이기철 의원의 안내로 의회 청사를 견학했다.

02

4월 3일 _ 보령 대천고등학교 학생회 임원과 지도교사 61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5년 첫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하였다. 서철모 도의회 사무처장은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03

4월 8일 _ 김기영 의장과 이종화 위원장(건설 해양소방위원회), 이용호 의원, 김명선 의원은 119소방정 취항식에 참석하여 소방정을 시승 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04

4월 8일 _ 김홍열 위원장(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8일 홍성군 거점소독장(홍주종합경기장)과 아산시 구제역 상황실(아산시 농업기술센터)을 방문하여 구제역 발생현황과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01	02
03	04





05

4월 9일 _ 접견실에서 예산군 고엽제전우회 정은희 회장 일행들과 환담하고 참전용사 한분 한분이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이며 세계평화의 수호자라며 위대한 금자탑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며 격려했다.

06

4월 10일 _ 김기영 의장은 예산군 삼교읍 명예읍장 박천돈씨를 접견했다.

07

4월 13일 _ 충청남도의회 김기영 의장, 장기승(예산 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기철 의원은 2015년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 연찬회에 참석했다.

08

4월 13일 _ 월요일 아산시 모니터 요원 대표단 일행은 김응규 부의원장(건설해양소방위원회)의 안내로 의회 청사를 견학했다.

05	06
07	08





09 10
11
12

09

4월 14일 _ 김기영 의장, 오배근 위원장(문화복지위원회), 이종화 위원장(건설해양소방위원회)은 내포신도시 건설 사업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했다.

10

4월 15일 _ 공주시 계룡면 주민 일행이 윤석우 의원의 안내로 의회청사를 방문했다.

11

4월 16일 _ 김기영 의장은 예산군 예당저수지 물넘이 확장공사 기공식에 참석했다.

12

4월 17일 _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 학회는 17일 대전교육청에서 '지방자치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충청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대토론회

일시 : 2015. 4. 17(금) 14:00

장소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강당

주최 : 한국지방자치학회 ·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13

14

15

13

4월 21일 _ 김기영 의장을 비롯한 아산·당진 지역구 의원 등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4

4월 22일 _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노인회 회원 일행이 김종문 의원의 안내로 의회청사를 견학했다.

15

4월 22일 _ 김기영 의장은 축협 전임조합 협의회 김홍섭 회장 등 15명을 접견하였다.





내포신도시 주말농장

15년 4월 30일 17시 도청이전주민생계조합, 흥성군농업기술센터



16	17
18	
19	

16

4월 23일 _ 김기영 의장과 오배근 위원장(문화복지위원회), 이종화 위원장(건설해양소방위원회)은 내포신도시 홍보관 주차장에서 개최된 '내포 신도시 유채·청보리 축제'에 참석했다.

17

4월 23일 _ 서천군 서천읍 구암리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조이환 의원의 안내로 의회청사를 견학했다.

18

4월 30일 _ 김기영 의장과 이종화 위원장(건설해양소방위원회)은 2015년 내포신도시 주말농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19

5월 1일 _ 김기영 의장은 수덕사 용산스님과 동국대 김대열 교수를 접견했다.





20	21
22	23

20

5월 6일 _ 김기영 의장은 예산군 천주교 김운석 신부를 접견했다.

22

5월 15일 _ 김종필 의원의 안내로 서산시 고북면 고북향족회 일행이 의회청사를 방문했다.

21

5월 12일 _ 조이환 의원의 안내로 서천 평산 신씨 종친회 일행이 의회청사를 방문했다.

23

5월 15일 _ 오배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공휘 의원, 김연 의원은 충청남도-아기 타현 자살예방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 김연 의원은 토론자로 참석했다.





24	25
26	
27	

24

5월 15일 _ 장기승 의원의 안내로 아산시 용화주공3단지아파트 노인회(대표:유수연) 일행이 의회청사를 방문했다.

25

5월 18일 _ 도의회 오배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홍성 의료원에서 일일명예원장에 위촉되어, 병원시설과 병동을 순회 하며 환자들을 위로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26

5월 22일 _ 김기영 의장은 서해안 복선전철 기공식에 참석했다.

27

5월 26일 _ 충청남도의회 김기영 의장, 이용호 의원은 충남발전 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28	29
30	31

28

5월 28일 _ 김기영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5년도 제5차 임의회(울산광역시의회)에 참석했다.

30

3월 30일 _ 김기영 의장과 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회 조이환 위원장, 정광섭 부위원장, 유익환 의원, 맹정호 의원 등 특위 의원들과 홍재표 의원(비례대표)은 희망 서해안 한마당 축제에 참석하여 피해어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피해민들 간 갈등 해소와 화합,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

29

5월 30일 _ 김기영 의장, 오배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제1회 내포문화숲길 걷기대회에 참석했다.

31

5월 31일 _ 김기영 의장은 예덕상무사 공문제 및 보부상재현놀이 축제 참석 하여 축사와 함께 예덕상무사 김영주 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사무처 소식



의회사무처장 서철모

내포! 발전 가능성과 제언

금년 1월부터 내포신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다. 감회가 새롭다. 2005년 7월부터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고 2006년 2월 의회에서 최종승인 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관으로서 실무 총괄을 맡았었기 때문이다.

내포지역은 택리지(擇里志)에서 언급한데로 예산과 서산의 중간에 있는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10고을(지금은 7시군)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다. 넓은 들녘, 적당한 높이의 산들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 큰 재난도 없었으며, 굶주린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또한, 풍부한 농산물과 해산물, 포구를 통한 수송의 편리함을 갖춘 풍요로운 지역 이었다. 지금은 대형 방조제 사업으로 의미는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언제 들어도 정겹고 넉넉함을 느끼는 지명이다.

지난 2013년 도청이 이전되면서 내포지역을 새롭게 조명하는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해 지는 것 같다. 내포지역 역사 문화의 특성은 대체로 개방성과 다양성, 그리고 진취성으로 개념 짓는데 이론은 없는 것 같다. 백제시대부터 바다를 통한 중국과의 교류를 위한 통로와 불교문화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했다. 백제의 미소로 널리 알려진 서산 마애삼존불은 그런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다.

조선말기에는 서양 선진문물의 전파와 천주교신앙의 자생적 발전, 그리고 순교지역으로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역사성으로 지난해 방한 한 교황께서도 짧은 일정 속에서도 내포지역인 솔피성지, 해미 성지를 방문하신 이유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내포지역의 상징은 우국 충절일 것이다. 고려말의 충신 최영장군, 사육신의 대표인 성삼문, 한용운선생, 김좌진장군, 윤봉길의사 등 국가를 위해, 또 충절을 위해 목숨을 던진 의(義)로운 분들을 많이 배출 하였으며, 오늘날에도 지역 주민의 높은 자긍심의 원천이 되고 있는 듯 하다.

그렇다면 내포신도시의 당면한 과제와 해결책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990만 m²(300만평)로 조성된 신도시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투자유치가 중요하다.

시장의 논리에 의존하기 보다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투자유치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둘째, 입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조속한 확충이다. 의료기관, 문화시설, 대형마트 등의 부재는 입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이유이며, 입주를 미루거나 주저하는 이유일 수 도 있다. 셋째, 신도시 건설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근지역으로 부터의 쏠림현상과 공동화 문제의 해결 또한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투자유치의 활성화, 유관기관과 산업시설의 유치를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때 순유입 인구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인근지역과의 공동번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세 가지 과제는 서로 단절적이지 않고 서로 연계되어 있다.

신도시 건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내외 경제는 물론 정치문제, 주식시장, 금리문제, 부동산 경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전문가 몇 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행동이 필요하다.

내포! 이 지역을 거쳐 바다로 또는 내륙으로 지났던 수많은 옛 사람들의 발자취가 느껴진다. 지금은 그 시절보다 훨씬 좋은 여건이라고 믿는다. 내포신도시의 성공을 확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무처소식

청소년 현장체험 ‘의회에서 민주적 의회절차 배워요~’

● 광천중, 대천고 의장선거, 조례제정 등 의정활동 체험

충남도의회는 5월 22일 홍성 광천중학교 학생과 지도교사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고 현장체험의 장을 가졌다. 또 지난 4월 3일에는 보령 대천고등학교 학생회 임원과 지도교사 61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적 회의절차에 대해 체험했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투표로 학생의장을 선출하고 도의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교내 휴대폰 사용 제한 조례안’과 ‘욕설없는 학교 만들기 조례안’등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 도민들의 의견이 정책이 수립 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의원발의 조례」시행현황...대체로 맑음

● 14년 의원발의 조례 14건 중 양호 11건, 보통 2건, 미흡 1건

2014년도 충남도의회 의원발의로 제정한 조례 14건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상황, 시행효과, 문제점 등 시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양호 11건, 보통 2건, 미흡 1건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발의 조례의 78%에 해당하는 11건이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는 집행부에서 신설제도에 대한 적극적 실행의지로 풀이된다. 이는 조례 제정 시 실행력 확보를 위해 사전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는 ‘합동검토제’를 강화하고 매년 ‘의원발의 조례 시행현황 점검’을 정례화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입법평가’ 기능을 강화한 것이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4회계연도 도와교육청 결산검사

01

● 김석곤 의원 등 회계·세무 전문가 9명 위촉, 5월 14일부터 20일간

충남도의회는 김석곤(금산1), 유찬중(부여1), 김명선(당진2) 의원을 비롯해 회계·세무 전문가 등 9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 5월 14일부터 20일간 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계속비 및 명시·사고 이월비 결산 등에 대한 서류·현장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적법성, 사업집행의 적정성, 예산낭비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의원행동강령 자문위 위촉식

02

● 각계각층 7명 위원 자문과 상담 역할 맡아

충남도의회는 5월 8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변호사 2명, 대학교수 4명, 시민단체 1명 등 총 7명의 의원행동강령 자문위 위촉식을 갖고 자문, 상담 등 역할에 대한 간담을 가졌다.



03



04

도·시군 입법담당공무원 합동 연찬회 가져

03

- 일선 시·군의회 입법 기능 강화 ‘한마음’... 정책분석 능력 향상
- 입법 관련 전문 지식 습득, 도의회·시군의회 간 정보 교류 강화

충남도의회는 4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부여군 소재한 리조트에서 일선 시·군 의회 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지방의회 보좌기능 강화 방안 모색, 담당공무원 간 정보교류를 통해 선진 지방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조례안(자치입법) 입안원칙과 심사 기법’, ‘도·시군의회 간 교류 확대 방안’, ‘자치법규 입안·심사 실무(사례 중심)’ 등 특강과 함께 도의회, 시군의회 간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충남도의회, 일선 시·군의회 지역 현안 힘 모아 해결키로

04

- 일지역현안 공동대응, 협력과 교류확대 위한 정례화와 지원 강화 약속
-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 동시에 지역 발전 초석 마련 한뜻

충남도의회와 4월 27일 부여롯데리조트에서 도내 시·군의회의장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을 공동으로 협력·대응키로 중지를 모으고 향후 교류 확대를 통해 도·시군의회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지역 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지원키로 했다. 우선 지방자치법 개정, 당진항 경계 분쟁, 보령 머드 축제와 계룡군문화축제, 태안 톨립축제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충남소개

충남느낌 여행

(<http://tour.chungnam.net>)



지금 그리고 여기...



팔봉산 감자축제

- 행사기간 / 2015. 06. 20 ~ 2015. 06. 28
-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양길리 820
- 행사장소 / 팔봉면 팔봉산 양길리 주차장 일원
- 연 락 처 / 041-660-3453

올해 14회를 맞이하는 감자축제는 감자 캐기, 감자요리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 외에도 농특산물 판매 및 즉석경매 등을 통하여 팔봉산 감자 및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당진해나루 황토감자축제

- 행사기간 / 2015. 06. 20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1024
- 행사장소 / 상록초등학교(송악읍 부곡리)
- 연 락 처 / 041-355-6080

당진의 길 높은 황토에서 자란 고품질의 황토감자 생산지로의 <제6회 당진 해나루 황토감자 축제>를 개최한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체험위주로 구성돼 황토감자 캐기 체험, 그림그리기 대회, 감자 골든벨, 감자요리 경연대회, 감짝 경매 등이 진행된다.





부여서동 연꽃축제

- 행사기간 / 2015. 07. 10 ~ 2015. 07. 19
- 위 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공남로52
- 행사장소 / 서동공원(공남지) 일원
- 연 락 처 / 041-830-2921, 2922

〈부여서동연꽃축제〉는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의 유망축제로 선정될 만큼 수려한 공남지의 경관과 천혜의 자연조건이 구비된 축제이다. 공남지 주변에 2만 5천여 평에 식재한 연과 야생화로 연꽃축제가 개최된다.



보령머드축제

- 행사기간 / 2015. 07. 17 ~ 2015. 07. 26
-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신항동 1029-3
- 행사장소 /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 연 락 처 / 041-930-3882

보령머드축제는 동양에서 유일한 패각분 백사장을 자랑하는 대천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해수욕 및 머드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청정갯벌에서 채취한 진흙을 가공·생산된 머드분말(mud powder)을 이용한 머드마사지(해변셀프 마사지, 침단머드마사지체험)와 머드체험행사가 운영되고 있다.



금강여울축제

- 행사기간 / 2014. 7. 26 ~ 7. 29
- 위 치 /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10-5
※ 7.28~29일 마을자체 농작물 수확체험중심운영
- 행사장소 / 금강놀이마당 일원
- 연 락 처 / 041-754-2724

신나는 물놀이 체험 과 강촌 체험 및 농작물수확체험, 잠자리잡기, 미니 어항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제공된다.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법

여름철은 고온다습한 환경적 요인으로 컨디션을 조절하기가 어렵다. 우리 몸은 적은 온도변화에도 매우 힘들게 반응 한다. 체온이 3°만 올라가도 고열로 인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된다. 특히 더위로 인한 야외활동 부족, 열대야 현상에서 오는 불면증, 냉방기 가동으로 급격한 체온변화, 각종 세균번식이 많은 질병 등에 주의해야 한다.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한 적당한 운동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문제점

근 무기력증, 만성피로, 일사병, 열사병, 탈수, 탈진, 냉방병, 피부 화상 등



1. 적당한 종목, 시간, 장소를 선택한다.

운동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이니 만큼 사용하는 에너지에 약 70%는 열로 발생한다. 자신에 개인에 체력에 따라 고강도 운동보다는 중강도 운동이 바람직하며,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등산과 같이 어쩔 수 없이 오버페이스를 할 수 있는 종목을 피하거나 체력이 비슷한 사람과 운동한다.

운동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시간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습도가 높은 장마기간에는 증발로 인한 체온조절이 어려워져 보다 주의해야 한다. 또한 운동시간은 2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이 필요한데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체온조절에 장애가 생긴다. 또한 운동 중 30분에 한번은 체온이 떨어지도록 휴식을 취하고 음료를 마시며 찬수건을 사용하거나 선풍기 바람을 이용해 체온을 낮춘다.

운동장소는 그늘이나 실내 운동이 좋으며 체온조절에 적당한 복장을 선택한다. 특히 고혈압 등과 같이 심혈관계 질환자는 온도가 28°이상인 장소에서의 운동을 피한다. 체온이 올라가면 감소를 위해 혈액이 말초혈관에 많이 분포하여 심장, 뇌 등 주요기관에는 혈액이 부족하여 위험하다.

2. 운동 중 적절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체온의 감소에는 땀을 증발시켜 체열을 떨어뜨린다. 그러므로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체온조절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할 수 있다. 수분의 체내 흡수는 대장에서 이루어지며 갈증을 느낄 때는 흡수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늦은 것이다. 따라서 수분의 섭취는 1회에 150~200ml의 음료를 운동전 30분, 운동직전, 운동중 20~30분 간격으로 섭취하고 물에 온도는 5°가 가장 흡수 속도가 빠르다. 수분의 흡수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의 섭취나 탄수화물 섭취를 위해 당이 포함된 음료나 채소, 과일도 좋은 수분 급원이다. 그러나 오렌지주스와 같이 당도가 매우 높은 음료의 섭취는 갈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600ml 물병에 꿀이나 설탕 1스푼 정도 희석하여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수분부족은 혈액산성화로 근기능, 신경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알칼리성 음료를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하루 2L에 물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여름철 운동시에는 땀에 의한 수분 손실로 3~5L의 수분섭취를 권장한다. 또한 운동 전·중·후 1회 150~250ml에 수분을 약 20분 간격으로 나누어 섭취한다.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고지혈증이 있는 환자는 수분 손실에 의한 혈액응축(혈액의 점도 증가)으로 더욱 수분섭취에 주의한다. 그러므로 운동 시에는 항상 물병을 지참하고 운동하는 것이 좋다.

3. 여름 운동에 적당한 복장을 한다.

땀 흡수가 잘 되고 활동성이 좋은 운동복과 운동화를 착용한다. 그러나 두꺼운 면소재는 땀을 흡수하고 유지하기 때문에 운동 중 무겁고, 몸에 마찰을 일으켜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통기성과 건조가 잘되는 기능성 소재가 좋다.

체중 감량을 위해 여름에도 통풍이 안 되는 바람막이나 땀복을 입고 운동하는 것은 체지방 효과도 없을뿐더러 피부질환이나 탈수에 원인이 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바지는 통기성이 좋고 땀을 잘 흡수하는 라이크라를 섞은 면 반바지나 나일론 재질에 가벼운 바지를 입으면 쓸림 현상을 줄여 준다. 운동화 역시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것이 좋으며, 여름철에는 습기가 많기 때문에 낙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끄럽지 않은 신발 신는다. 운동화를 자주 세탁하기 어려울 경우 깔창을 추가 구입하여 자주 세탁하고, 잘 건조시켜 사용하면 발 건강에 도움이 된다.

야외 운동시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여 태양으로부터 눈과 피부를 보호한다. 땀이 많은 사람인 경우 모자 안에 헤어밴드를 착용하면 눈으로 땀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직사광선이 강한 경우 몸에 자외선차단크림을 바르고, 지나치게 피부 노출이 많은 옷은 피한다. 수영이나 물놀이시에는 보다 자외선차단제를 자주 바르고 눈병에 걸리지 않도록 물안경을 착용한다. 강과 계곡과 같이 수온이 차가운 곳에서는 추위를 느낄 때 입을 수 있는 마른 옷이나 큰 수건을 준비한다.

4. 알코올 섭취를 피한다.

여름철 음주는 알코올의 체내 흡수속도가 빠르고, 음주 후 탈수를 유발하며 체내 산성도를 높여 몸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알코올은 영양소는 아니지만 열량소이고 안주 또한 고열량이기 때문에 더위를 심하게 타게 된다. 음주 중·후에는 보다 많은 수분의 섭취가 필요하며 운동은 절대적으로 삼간다.

이상으로 여름철 운동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아보았다. 운동은 몸에 열량을 소모하여 편안한 숙면과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운동은 체온을 높여 외부 더위에 보다 잘 견디게 하는 백신이라고 할 수 있다.



모바일세상속 충청남도의회

의회 방청 안내

방청문의 : 총무담당관실

☎ 041-635-5054

● 충청남도의회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에서 충청남도의회 의정 활동 및 의회 운영
모든 사항과 회의 생중계시스템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많이 방문해 주세요.

● 접속방법

- ① 스마트폰 브라우저에 URL주소
(council.chungnam.go.kr) 입력
- ② 안드로이드 마켓에 “충청남도의회” 검색 후 앱 설치
- ③ PC에서 네이버 검색창에 “충청남도의회” 검색하여 앱
설치(내폰으로 보내기)
- ④ PC버전 홈페이지 하단에 QR코드 스캔

의회홈페이지(<http://council.chungnam.go.kr>)
참여마당에서 방청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시어
팩스(☎041-635-5009)로 보내주시면 접수하여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청시 유의사항

- 방청석 이탈하여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한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행위
-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등

도민과 양방향 소통을 위한 SNS 운영

- 블로그 <http://blog.naver.com/cncouncil>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ncouncilINP>
- 트위터 <https://mobile.twitter.com/council>
- 카카오톡 카카오톡에서 Cnc12검색후 소식받기

의회소식지 구독 신청방법

- 이메일 : bn5744@korea.kr
 - 전 화 : 041-635-5102
 - 팩 스 : 041-635-5009
 - 우 편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충청남도 의회)
- ※ 구독신청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